

전북보건복지센터 **채인석** 사회복지사

# 정신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1** 칭찬텔레이 사회복지사로 선정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저를 추천해주신 아산정신보건센터 김민경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전북보건복지센터 박헌수 원장님, 직장동료선생님,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동문선후배, 광주대 김창곤 교수님, 국립나주병원 박귀서 선생님, 광주금호JCI 회원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길을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저희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 현재 전북보건복지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이 분야에서 일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학교 2학년 때 정신보건 분야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정신보건 분야에서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이어서 강의를 듣는 동안 점차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자원봉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 총무, 정신보건 관련 워크샵과 세미나 참석 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 정신과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5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상담 및 재활에 초점을 두어 일했으며, 국립나주병원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일하다보니 사회복지, 독립생활,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장애인 상담 및 재활 일을 배우고 싶어서 전북보건복지센터에 입사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3** 전북보건복지센터에서는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마음이 아픈 천사들과 가족을 위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던데요, 프로그램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전북보건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중 종합훈련시설로써 이용 110명으로 신고된 시설입니다. 먼저 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픈 천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내고 궁극적으로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을 성취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센터 주요 사업은 정신장애 인식개선, 가족교육, 직업재활, 동기강화사업, 대외기관과 협력교류, 교육, 연구, 학술, 조사, 독립생활 지원사업 및 재가서비스 등으로 특히, 저희 센터는 차별화된 서비스 및 특성화, 중점화 사업은 직업재활입니다. 직업재활을 위해서 “선취업 지원모델”에 입각하여 정신장애인이 경쟁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 마음이 아픈 천사들이 직업재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과 고통을 이겨내고 사회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아픈 천사들에게 “변화는 곧 기회이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며, 자기 노력에 변화를 주도하며, 또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픈 천사들에게 자신의 능력(empowerment)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지금 고비, 실패, 좌절을 극복한다며 앞날은 물론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와 어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정신장애인이 변화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여 독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여가 및 직장생활, 약물관리 등을 스스로 해나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재발로 인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인 것 같습니다.

**6** 앞으로 사회복지현장과 개인적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앞으로도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윤리관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할 때가 있더라도 정신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후학양성과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



력하고 싶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에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습지도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박사과정을 통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방향에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7** 다음 칭찬 사회복지사를 추천과 추천 사유를 부탁 드립니다.

▶ 제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승이시며,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을 추천합니다. 바로 국립나주병원 의료사회사업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박귀서 선생님 이십니다.

후학을 위해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정신보건분야에서 20년 동안 정신과병원 및 정신보건사업에 애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소년원에 가서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